

# “내가 떠나면 울릉도 문화산업 후퇴할텐데...”

## 아들 골수암 걸려 사업 포기



송사장이 먼지쌓인 활자를 쓰다듬으며 인쇄업을 접고 울릉도를 떠나게 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동해의 작은 섬 울릉도. 울릉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돌덩인 듯 보였다. 특히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우산국이라는 독립 국가로 존재했던 울릉도는 얼마 전만 해도 기상이 고르지 못한 때는 포항~울릉도간 217km의 항해에 12시간을 넘어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을 만큼 만만찮은 거리에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의 경치가 이국적인 맛을 풍겨내고 있었다.

그러나 휴양·관광지로 이름 높은 울릉도를 찾는 기자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았다. 방문이 예정된 학원인쇄사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거주인구 1만명(3700여 가구) 턱걸이에도 힘에 부친다는(한창 번성했을 때는 3만명을 상회했다고 함) 울릉도라지만 1952년 사업인가를 낸 이래 반세기 넘게 울릉도 전지역의 인쇄산업을 도맡아온 학원인쇄사가, 기자의 방문 무렵인 1월말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년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하던가... 여기 저기 수북히 쌓인 눈 때문에 빠지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도동항구에서부터 심심찮게 발견됐다. 마음이 가볍지 않아서인가 기자도 눈길에서 여러 번 '기우뚱기우뚱' 하며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64년 개간사업 목적으로 울릉도 정착 학원인쇄사 송원주(73세) 사장은 1964년에 울릉도에 정착했다. 경상남도 함천이 고향인 송 사장은 육지(대구)에 있을 때는 출판사 및 서점의 책 외판사원으로 여러 해 직장생활을 했고 이후 조그만 출판사도 경영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사장은 의욕 있게 시작한 출판사 운영에 실패를 맞은 후 울릉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 울릉도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었지만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토대로 한창 진행중이던 울릉도 개간사업에 도전해 볼 생각이었다. 송 사장이 처음 도착했을 때 울릉도의 모습은 천국이었다.

“그 때 육지에서는 먹고살기도 어려운 판에 살기도 각박하고 삭막했어. 버스만

타더라도 소매치기가 하도 많아 돈을 조금만 갖고 다녀도 항상 주머니에 손을 대고 다녀야 안심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1964년의 울릉도는 완전 판 세상이었어. 도둑이 없어 집에 대문이 필요 없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 오징어배가 하루에 두 번씩 만선을 이를 만큼 풍어였지. 돈도 흔해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자기 것 아니면 주어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단니까. 아마 그때쯤 5천원짜리 지폐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돈이 길에 굴러다녔단니까..”

그러나 그 당시 과열경쟁이 붙었던 육지에서의 책 외판업은 송 사장이 개간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책 외판할 때 같이 일했던 김낙준(금성출판사 회장)의 처남이 포항에서 학원사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지. 그 무렵 박우사에서 전집류 책을 발간하고 영업에 모든 힘을 쏟고 있었는데 이 곳 울릉도까지 영업망을 넓히려려고 했어. 이에 포항 학원사 직원들이 나한테 먼저 허락도 안 받고 책을 무조건 실어다 놓고 나보고 처리하라며 부탁하는 것이야. 어쨌든 해오던 일이고 김낙준 사장과의 안면이 있으니 도와주게 됐지. 그러다가 결국은 개간사업을 하려던 계획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책 외판업에 몸담게 됐지”라는 것이 송 사장의 울릉도 이전 무렵의 기억이다.

이를 계기로 송 사장은 포항 학원사의 울릉도 영업 총 책임을 맡게 되고 이후에는 울릉도 전업 서점 1호인 학원사도 열게 된다.

#### 울릉도 전업 1호 서점 · 인쇄사 개설

포항 학원사와의 인연으로 울릉도에서 학원사를 개업한 송 사장은 1973년을 전후해서는 문방구와 인쇄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배명구씨로부터 인쇄기계를 인수, 서점 뒤편에 전업 인쇄사 1호인 학원인쇄사도 개설하기에 이른다.

“서점과 인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리고 몇 년간 서점을 운영하며 학교와 관

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인맥도 충분히 형성돼 있었지. 더구나 울릉도는 육지에 있는 관청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 재해관련 관청까지 있기에 인쇄물 수요에도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히 인쇄량은 많지 않더라도 종류가 많았으니 수지타산 맞추기에는 아주 안정맞춤이었어. 이런 것들이 인쇄시설 인수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야”라며 송 사장은 인쇄사 설립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때부터 송 사장은 명실상부하게 울릉도 내 유력한 문화산업 전달자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행사 기부를 통한 사회회원 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울릉도에 많을 때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까지 있었어. 서점과 가장 연관성이 높으며 울릉도 내에서 가장 큰 행사의 하나인 운동회에 대한 지



원은 절대 빼먹지 않았지. 물론 군민체육대회, 경찰의 날 등과 같은 각종 지역행사 등에도 자주 기부를 했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내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장사를 해왔지만 장사꾼 같은 대우는 받지 않았어. 또한 군정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같은 직책도 여러 해 역임할 수 있었지. 그러다 보니 울릉도에 처음 들어올 때는 한 2,3년 고생하다 육지로 나간다고 계획한 것이 어느새 40년이 되었다니까..”

#### 정착 초기에는 어려움도

1964년 송 사장은 가족들을 육지에 남겨 둔 채 혼자 울릉도에 들어왔다고 한다. 몇 년 고생하고 육지로 나간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나 육지를 떠난 이후 송 사장이 감감 무소식이니 아내는 몇 년 후 울릉도로 찾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67년경이던가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울릉도로 들어왔어. 그런데 울릉도에 들어오자 ‘여기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고 하소연하며 며칠을 울기만 하더라고. 그때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 그러나 어쩔 수 있나 이왕 시작한 일...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은 잘 가더라고’라며 울릉도 정착 초기 아내를 설득하기까지의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송 사장이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배명구씨한테 인쇄시설을 물려받은 이후 인쇄기술자로 있던 최문상씨도 함께 일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말야. 애간장을 녹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 인쇄사에 며칠씩 나타나지 않아 집에 찾아가 보면 술 먹고 자고 있는거야. 그러면 자고 있는 최문상씨를 한참이나 설득해야 데려올 수 있었지”라며 회상했다.

이런 이유에서 송 사장은 이후에는 대구에서 직접 인쇄기술자를 초빙하기도 하고 아들과 조카들에게 직접 인쇄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대구에서 온 인쇄기술자를 채용하려면



월급 이외에 집까지 제공해주어야 했어. 울릉도는 산세가 험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 값이 엄청 비쌌지.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값이 많이 내려간 거야. 다행히 자식이나 조카들은 젊어서인지 일을 금방 배웠고 인쇄사도 차츰 안정을 찾게 됐어. 이후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달렸고 한 5, 6년 전까지는 일감도 많고 경기도 아주 좋았어”라며 반색했다.

#### 인쇄인 사명감으로 보낸 30년

송 사장은 인쇄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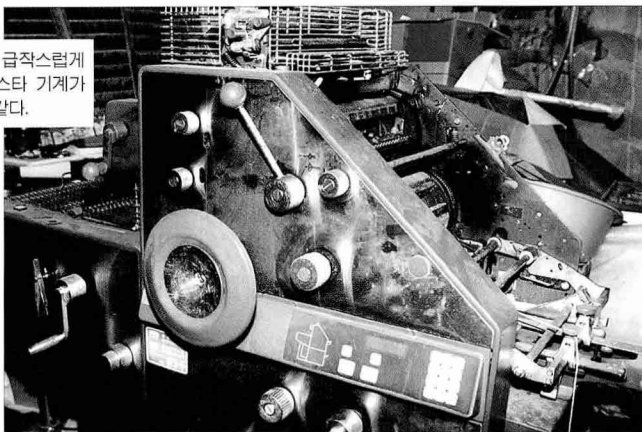
송 사장은 “지난 30여년 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인쇄업을 영위했지만 배짱을 부린다거나 비합리적으로 인쇄물 단가를 올리는 등의 불필요한 영업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 오로지 조달청 단가에 준해서 가격을 책정했으며 그 기준에 근거해 얼마만큼 할인해 주기도 했지. 어떤 경우에는 육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비한 덤핑가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할인 폭을 더해주기도 했어. 가능하면 고객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라며 학원인쇄사의 30년 경영 노하우를 밝혔다. 또한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송 사장의 경영방침은 지역 주민들의 굳건한 신뢰로 승화된다.

“일테면 관청 등을 비롯한 기타 고객들이 여기 학원인쇄사에서는 작업할 수 없는 컬러 인쇄물에 대한 요구를 할 때도 있었지. 이 때는 서슴지 않고 직접 대구를 왕래하며 작업을 대행해줬어”라며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했다.

인쇄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인쇄에 관한 고객들의 요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장남의 골수암 발병으로 급작스럽게 정리한 인쇄사. 지금도 마스타 기계가 인쇄물을 금방 토해낼 것 같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장남의 골수암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송 사장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장남이 인쇄기사 한 명과 함께 인쇄사 내부업무를 담당하고 자신은 외부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학원인쇄사를 큰 탈 없이 운영해왔다. 그런데 약 5, 6년 전부터 각 관청에 복사기 보급이 확대되고 컴퓨터 관련 서류작업도 눈에 띄게 발달함에 따라 인쇄물 수주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 운영의 어려움을 맞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2002년 7월 컴퓨터 관련 작업을 보완, 새로운 사업구상에 몰두하며 인쇄사를 같이 운영해왔던 장남에게 예고 없이 골수암이 찾아왔다.

허겁지겁 육지의 큰 병원으로 장남을 이송시킨 송 사장은 이후 인쇄사를 전혀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골수암이라는 병의 특성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에 가세도 급격히 기울어갔다.

이에 울릉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기금 모금이 이뤄져, 무려 3천만원 이상의 정성이

송 사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고 한다. 3천만원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골수암으로 입원하고 있는 장남의 병원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어쩔 수 없이 송 사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40년 울릉도 생활의 정리를 결심하게 된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감당키 어려운 병원비에 건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이 이미 용자금 담보로 들어가 있어 40년 간 애써 일해 왔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울릉도를 떠나는 형편이다”라는 이웃의 증언이다.

수북히 쌓인 먼지와 무거워지는 마음 인쇄사를 정리하게 된 배경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잠시 자리를 옮겼다. 인쇄시설이 있는 곳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서점 뒤편의 인쇄사 공간에 들어서자 램

프크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어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울릉도 문화산업 후퇴가 가장 염려 인쇄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다시 방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었다.

30년 몸담고 있던 인쇄업에 대한 회상이기도 했으며 이 곳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다.

“인쇄업만큼 경쟁이 심한 업종도 없는 것 같아.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덤핑가격을 무기로 대구와 포항 등지에서 온 인쇄업자들 때문에 인쇄물량이 많이 줄더라고. 그런데 외부 업자들이 지속 진출하는 것에 따른 문제는 무엇보다 울릉도만의 문화산업이 사라져 간다는 데 있어. 더구나 내가 이 곳을 뜨면 울릉도의 문화산업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것이니 안타까울 수밖에... 이 시설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현재 울릉도에는 인쇄업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라며 울릉도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서점이 없어지면 참고서나 월간 잡지도 제목이나 출판사의 광고문구만 믿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육지를 왕복하며 구입해야 해. 이는 울릉도 문화의 심각한 후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도 각종 서적을 직접 눈으로 비교해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야. 장사 욕심으로 서점과 인쇄사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울릉도 문화산업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후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못내 아쉬워했다.

30년 넘게 서점과 인쇄사를 운영하며 울릉도 문화산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송 사장이 예기치 못한 일로 도망치듯 울릉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웬지 모를 송구한 마음이 솟구쳤다.

이상스럽도록 고요한 동해를 가로지르며 돌아오던 배 안에서 울릉도를 찾아갈 때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조갑준 기자)

**“장사 욕심으로 서점과 인쇄사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울릉도 문화산업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후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프가 잘 켜지지도 않는 형광등 불빛 아래 수북히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는 인쇄기와 각종 기자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터기와 재단기에 살짝 덮여 있는 종이 박스를 보니 급작스럽게 자리를 떠야했던 상황이 클로즈업됐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각종 활자와 그 앞에 위치하고 있는 활판인쇄기는 이미 먼지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됐다는 석판인쇄기가 비닐에 덮여 자리하고 있었다.

작업대에는 얼마 전까지 작업했을 듯한 컴퓨터 본체가 있었고 그 위에는 작업계획표가 2년 전의 시간에 멈춰서 있었다. 그러나 곳곳에는 지금도 쓸 수 있는 종이와